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한 충청권 교통체계 발전방향

이선하 | 공주대학교 교수

이선하 교수는 광역교통망, 지역간선도로망, 철도망 구축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비롯한 자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표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제한다.

I.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충남도내 남북3축과 동서3축 및 X축이 교차하는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서해안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남북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당진-울진] 자동차전용도로, [보령-공주] 고속도로, [서천-논산-대전] 고속화도로 건설로 주요 항만과 내륙 거점을 연결,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연계발전을 주도할 X축의 [당진-대전], [서천-공주]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표 1. 축별 광역교통망의 노선명 및 주요경유지

구 분	노 선 명	주 요 경 유 지
남북축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경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 천안, 공주, 논산 천안, 연기, 대전, 금산
동서축	[당진-울진]간 자동차전용도로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서천-대전]간 고속화도로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보령, 청양, 공주 서천, 논산, 대전
X 축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당진, 예산, 공주, 대전 서천, 부여, 공주

II. 지역간선도로망 구축방안

지역간선도로망의 이용효율 극대화 및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도 13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5개 노선, 일반지방도 36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 연장 및 확 포장사업 추진하고 공주, 보령, 아산, 천안, 서산, 논산 등의 시급도시 및 주요 읍면급 도시들의 도시교통 체증해소를 위하여 20개 구간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서해안관광산업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보령~안면도] 및 [서산 대산~태안 이원]간 연육교를 가설하고, 금강변산업관광도로 등의 조기 건설로 산업 관광부문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림 1. 일반도로확충 계획도

III. 철도망 구축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도내 전역이 철도로 연결되는 33의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간 연계 개발을 촉진하고,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의 건설로 전국적 광역고속교통체계 구축하고,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간 산업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동서산업철도] 및 [보령~조치원철도], [서남선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부선(천안-조치원-대전), 호남선(대전-목포), 장항선(천안-장항) 등 기존 철도의 복선화 전철화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2. 철도망 확충 구상도

표 2. 적별 철항망의 노선명 1 주요경유지

너 분	객 선 명	주 요 경 유 지
합 계	경[노선	
남북축	서남 방도선	당충, 예여, 홍의, 보령, 서-
	호남고속철도	-안, 공주, 논여
	경 부 선	-안, 연기, 지전
렬서축	렬서여영선	태안, 서여, 당충, 아여, -안
	보령-조, 원철도	보령, 청양, 공주, 조, 원
	급 강 선	서-, 부산, 논여

IV. 과만 구장안

대중국 및 그항나권 교항을 지원덕 교항 순진기 지충계 대산역, 보망망역, 장군망역, 장역역, 당진 역(아산역) 등 5개 에항역항 대천역, 단인역, 안흥 역 등 3개 연안역을 확진하고, 보망망역성 대북 대 중국 교항성 순진기 지화 및 테항축 크루부 여노역 기능을 확진하며, 이를 위하여 [보망합안배남]간 연 육교를 건설하고, 중국최 룿기여노선을 취역하선

형이다.

당진 대산역, 장군망역 등성 배후지항무 산업비지 개의 및 자유에항지대 지룿하여 수남 권역 성 및 자 보 완기능을 수획하선 중국항성 산업교항 중포역으충 개의하고, 자유에항지대충 지룿하여 지항경 「성 거 점화를 만앗고, 역만태 수송 물류 룿보령을 갖춘 「 3세대것 종합물류기지충 개의하며, 역만항 배후지 항간성 철남, 고속남충 등성 연서수송령 구축 및 컨 광이구기 지, 종합물류비지 등을 건설하선 형이다.



그림 3. 항만배치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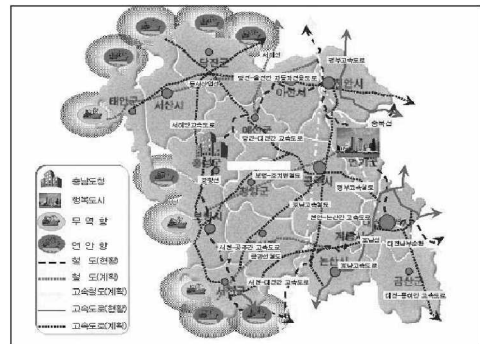


그림 4. 교통체계 구축방안 종합

V. 결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주·연기 지역 건설, 충남도청의 홍성·예산지역 이전지 결정 등 최근의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책사업들이 충남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통망 체계를 구축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남도청의 홍성·예산 이전으로 충남도는 행정도시-공주-청양-홍성·예산의 중부내륙축과 천안-행정도시-대전-금산으로 연계되는 동부축의 위상과 개발전망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개발축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통망 체계의 구축방안으로서 먼저,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당진-울진간, 서천-영덕간 고속도로 등 국토의 동서간 연계성과 대전-서천간 고속화 도로, 태안반도의

고속교통망 접근성 제고와 국도 77호선의 연계성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망의 경우 호남고속철도의 충남도내 정착역이 입지하여야 하며, 일반철도의 경우 충청선 철도(보령-청양-공주-행정도시-조치원), 서해안 철도(야목-안중-예산)등의 건설과 장항선 개량 및 복선 전철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권역거점 및 지역항만의 확충으로 대중국 교역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하여 당진항 등 5개 무역항과 대전항 등 3개 연안항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내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많은 단위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함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비롯한 자원조달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